美 올랜도 테러사건에 전 세계 종교인 반응

"무고한 생명에 폭력·살인 안 돼"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 올랜도 총기난사 테러 '애도'

불교·개신교 등 테러 규탄
美 사찰서 촛불 기도회 열어
각 종교 입장 극명히 갈려
개신교, 동성애 반감 극심



6월 12일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난사 테러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추모 행사.

사진출처=가톨릭 위클리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미국 최악의 총기난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올랜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불교·개신교·이슬람교·힌두교·유대교 등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도 총기 테러사건을 규탄하고, 미국의 불교단체는 총기난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네바다 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 연합 감리교회에 모였다. 행사에는 케네스 루시 네바다대 종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던M.플라워(연합감리교회 목사), 압둘라힘 (네바다 무슬림 공동체 이맘), 매튜T.피셔(리노 불교센터 주지), 엘리자베스 웹 바이어(북 타호 히브루심의회 랍비) 등 네바다주에서 활동하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모임을 주최한 라잔 제드는 "이곳에 모인 종교인들은 만장일치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살인 사건의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올랜도 나이트 클럽에서 일어난 비극에 깊이 통탄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성직자로서 서로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친절과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뉴욕주 우드스톡에 위치한 블루로터스 불교사원은 6월 15일 진행된 정기 명상프로그램 중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명상과 법문을 진행했다. 이후 우드스톡 광장으로 이동, 촛불행렬을 진행했다.

블루로터스 불교사원 주지인 타일러 루크는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공존하며 산다. 이번 사건에 매우 가슴 아파 하며,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종교를 떠나 다문화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루로터스 사원에 와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권 지도자들의 추모도 눈길을 끌었다. 테러범인 오마르 마틴(29)의 아버지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은 13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내각회의에서 미국에 조의를 표한 뒤 "올랜도 총격 사건은 테러리즘이 종교와 경계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말해준다"며 '테러 박멸'을 강조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내어 "가장 강한 어조로 올랜도 공격을 비난한다"며 "이집트인들은 이 힘든 때에 미국인 곁에 서서 진심어린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종교계의 반응이 다양하다.

새크라멘토베리티침례교회 로저 지메니즈 목사는 사건 발생 직후 주일설교(12일)서 희생자들의 대다수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로저 목사는 "오늘 50명의 동성애자가 죽어서 슬픈가"라 물으며 "오히려 이 사회를 위해 잘된 일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죽음으로 올랜도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설교했다.

반면, 이슬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종교적 신념과 연관 짓는 것을 경계했다. 미국 내 최대 무슬림 협회인 '무슬림퍼블릭어페어카운슬(MPAC)'은 "올랜도 총격 사건은 종교(이슬람)와 관련 없는 혐오범죄에 의한 끔찍한 비극"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캐나다 스님들, 빵 구워 이재민 도와

산불 피해자들 위해 빵 판매 수익금 기부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섬 (PEI)의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매주 2000개의 빵을 구워 산불을 피해 임시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증 하고 있으며 빵 판매 수익금은 캐나다 적십자회에 기부했다.

사진출처=가디언닷컴

캐나다 스님들이 지난 5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6월 11일(현지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스님들이 포트 맥머레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금 1만1000달러를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 앨버타 주 포트 맥머레이서 산불이 발생했다. 약 1,600㎢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배가 불에 탔으며, 민간인 거주 지역도 산불 위협을 받아 대피한 주민만 9만 여명에 달한다.

이에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PEI)의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 스님들은 매주 2,000개의 빵을 구워 산불을 피해 임시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일 동안 4천개 빵을 판매하며, 빵 한 개가 팔릴 때 마다 1달러를 모아 총 1만1,600달러를 캐나다 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캐나다 적십자사 PEI 지역 담당 로라 존슨 몽티니는 "이번 포트 맥머레이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존경심을 표했다.

제프리 얀 대각불교회 스님은 "이번 모금 행사를 계획했을 때 스님들 모두 만장일치로 호응을 해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서 티베트 불교행사 '무사히' 봉행

6월 7~10일 간쑤성 지역서 '카라차크라' 열려



중국 간쑤성서 6월 7~10일 티베트 대중 불교의식 '카라차크라'가 봉행됐다. 사진은 7일 행사 모습.

사진출처=자유아시아방송

중국 간쑤성 북서부 지역서 티베트의 대중 불교 의식 '카라차크라(kalachakra)'가 봉행됐다.

중국 당국은 행사가 반(反)중국세력의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수백 명의 군인을 배치했지만, 특별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6월 7~10일(현지시각) 간쑤성 지역서 열린 카라차크라 행사에 수천 명의 티베트인이 모여들었다. 카라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란 뜻으로 티베트인들이 샴발라(Shambhala;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현자들이 사는 성스러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길 기도하는 전통의식이다.

2014년에도 이 지역서 카라차크라 행사가 진행됐으나, 중국 당국은 당시 기습 시위 가능성을 우려해 수백명의 군인을 주둔시키며 철통 경비를 펼치는 한편, 일반 신도들의 참석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장경찰과 군인들을 곳곳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개의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고, 먼 거리서도 참가자들이 행사를 듣고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또한 간이화장실과 비상 응급처치대 등 시설도 갖추며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 행사 관계자는 "완벽한 행사였다. 설치한 천막 안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수천 명의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모였다"며 "중국 각지서 몰려든 불자들을 위해 좌석배치도 대폭 확장했다"고 흡족해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대의 중국 군인들은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이 종교행사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는 중국의 강압 통치에 반발하는 시위 및 분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달라이라마 "무슬림, 테러리스트로 일반화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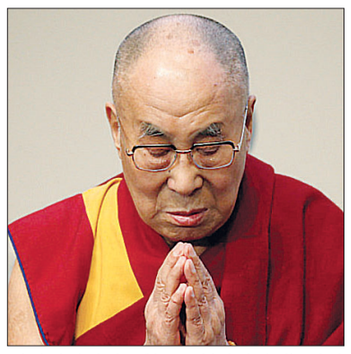
6월 1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달라이라마가 미국 올랜도 테러사건에 대해 "모든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봐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충고했다.

달라이라마는 6월 13일(현지시각) 영국 통신사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이번 테러는 5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인 중에서도 그악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일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전체를 일반화할 순 없다"며 "무슬림 개인이 테러를 일으킬 순 있지만, 무슬림 전체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는 불편함이나 의견충돌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20세기의 소산이라 진단하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낡은 사고방식이 반복된다면 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달라이라마가 6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연설에 앞서 올랜도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Huffington Post

지난 12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 위치한 게이클럽 '펄스'에서 아프간 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29)의 총기난사에 의해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마르 카틴은 테러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 IS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그의 부친 세디크 마틴은 과거 지역방송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옹호하고, 근본주의 이슬람 정신을 추앙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❶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❷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❸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❹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